

알버 엘바즈(Alber Elbaz)에 의한
랑방(Lanvin) 디자인의 미적 특성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eanne Lanvin's Design by Alber Elbaz

이진민

신구대학교 섬유 의상 코디과 전임강사

Jin-Min Lee

Dept. of Textile & Clothing Coordination, Shingu College

1. 서론

-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2. 연구문제 및 방법

2. 수석 디자이너에 따른 랑방의 작품세계

- 2-1. 잔느 랑방
- 2-2. 알버 엘바즈

3.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 3-1. 현대적 낭만미
- 3-2. 실험적 형태미
- 3-3. 섬세한 장식미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알버 엘바즈에 의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으며 부활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브랜드의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미적 가치와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알버 엘바즈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랑방 디자인의 미적특성은 현대적 낭만미, 실험적 형태미, 섬세한 장식미로 고찰되었다.

첫째, 현대적 낭만미는 낭만적 감성과 단순함의 결합이라는 잔느 랑방 고유의 미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서, 과거 랑방의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편안하고 전통적인 실루엣과 로맨틱한 디테일, 고급스러운 소재 위에 심플한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표현되었다.

둘째, 실험적 형태미는 기존의 전통적 랑방 디자인에 엘바즈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조형 감각이 더해진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서, 과장된 볼륨과 비대칭, 비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조형적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셋째, 섬세한 장식미는 의복전반에 고급스러운 장식적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표출되는 미적특성으로, 과거 잔느 랑방이 보여주었던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을 더욱 발전시킨 다양한 트리밍과 직물 자체를 이용한 디테일의 활용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화려하며, 우아한 장식미를 추구하고 있다.

주제어

알버 엘바즈, 현대적 낭만미, 실험적 형태미, 섬세한 장식미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anvin design succeeded by Alber Elbaz, and tried to understand his pursuing brand's new design concept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three key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anvin designed by Alber Elbaz are (1) modern - romantic beauty (2) aesthetic of experimental form (3) the beauty of delicate decoration.

First, the modern-romantic characteristic is a reinterpretation of Jeanne Lanvin's romantic simplicity. It is expressed in comport & traditional silhouettes of dresses, romantic details, and luxurious materials based on simple and contemporary feeling.

Second, aesthetic of experimental form is new mode of expression of Alber Elbaz's innovative and experimental sense of the fom. Throuh the exaggerated volume, asymmetrical & unconstructed design, the Elbaz's avant-garde silhouette was expressed.

Third, the beauty of delicate decoration is expressed in various trimmings and luxurious self-fabric details based on Jeanne Lanvin's original handcrafted details. Elbaz pursues the beauty of decoration which is more splendid and elegant.

Keyword

Alber Elbaz, modern-romantic beauty, experimental form, delicate decoration

1. 서론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오늘날 이전 시대의 명성을 가진 패션 하우스들은 새로운 브랜드의 탄생과 소멸 속에서 하나의 보증이 되고 있다. 과거의 패션 하우스의 새로운 계승자로 결정된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본인의 개성과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하우스 아카이브와 오랜 역사 속의 고객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느 랑방(Jeanne Lanvin)이 1889년에 설립한 랑방 하우스는 현존하는 파리의 디자인 하우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화려한 아름다움과 세련된 절제미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파리 패션 하우스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랑방은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1946년 창립자 잔느 랑방의 사망 후 여러명의 수석 디자이너들이 브랜드를 거쳐가며 명맥을 유지하던 중 2001년, 이스라엘 출신의 디자이너 알버 엘바즈(Alber Elbaz)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되면서 현재 제 2의 전성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인 브랜드 혁신을 이루었다. 2007년 랑방은 1489만 달러의 매출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년 전인 2005년에 비해 60% 성장한 높은 수치이며, 2009년에는 전세계 매장수 450개를 돌파하는 등 (Bee, D., 2010) 엘바즈 영입 후 새로워진 랑방의 스타일은 대중의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랑방 브랜드의 부활을 이끌어낸 알버 엘바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므로, 관련 연구로서 20세기 초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이진민, 2010)와 패션 브랜드 혁신 및 현대화 전략에 관한 연구(이해연, 2005 ; 김미리, 2007)에서 2세대 디자이너의 사례로 언급된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동안의 인지도 하락과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브랜드의 부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변화된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11년은 알버 엘바즈가 랑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그의 디자인을 정리하고, 나아가 디자인 측면에서 브랜드의 현대화에 기여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패션 브랜드의 혁신과 브랜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자인의 방법론적 측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잔느 랑방에 관한 연구(이진민, 2010)를 통해 오리지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고찰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패션 브랜드의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 및 디자이너의 창조적 역량 제고를 위한 자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규명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19세기 오픈 이래 오랜 하우스 아카이브를 축적해 온 랑방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에 따른 시대별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브랜드 혁신의 원동력이 된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잡지,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연구와 2002년~2011년까지 발표된 알버 엘바즈의 파리 컬렉션 사진 자료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알버 엘바즈가 랑방에 영입되어 진행한 S/S, F/W시즌 파리 여성복 컬렉션 - '2002 F/W 컬렉션부터 '2012 S/S 파리 컬렉션까지- 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패션 전문지 및 www.firstview.com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고찰을 진행하였다. 2명의 의류학 전공자가 전체 사진 자료에 대한 1차 검증을 통해 복식의 주요 조형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의 경향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수석 디자이너에 따른 랑방의 작품세계

랑방 하우스는 창립자 잔느 마리 랑방(1867~1946)이 1889년 파리에 오픈한 모자 부티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현존하는 파리의 디자인 하우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로맨틱하고 우아한 파리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선, 2011)

1920-3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놀라운 창조성과 업적을 보여주었던 잔느 랑방이 1946년, 79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50여년에 이르는 20세기 후반의 긴 시간 동안 여러명의 수석 디자이너를 거치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브랜드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랑방이 사망한 직후 약 3년간은 그녀의 딸 마거

릿 마리 블랑쉬(Marguerite Marie-Blanche)가 제너럴 디렉터로써 랑방을 이어받았다. 뒤이어 1950년, 엘리자베스 아덴(뉴욕)에서 일했던 안토니오 카스티로(Antonio Canovas del Castillo del Rey)가 컬렉션을 맡으면서 한동안 'Castillo for Lanvin'으로 컬렉션이 진행되었다. 그는 첫 번째 컬렉션에서 랑방의 시그너처 아이템인 로브 드 스틸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현한 화이트 새틴 이브닝 드레스를 발표하는 등 브랜드의 전통적 아이덴티티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전개하며 브랜드를 이끌었다. 1963년 카스티로가 물러나고, 1964년 니나 리치에서 일했던 줄 프랑소아즈 크라헤이(Jules-François Crahay)가 영입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감수성(Folk Sensibility)을 주요 기조로 20여년간 랑방을 이끌었지만 70-80년대 패션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중의 호응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1990년,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가 짧은 기간 랑방에 합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보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룩으로 랑방을 이끌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으나 7번의 컬렉션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였다. 1993년, 패션계의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랑방 하우스는 오프 쿠튀르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도미니크 몰라티(Dominique Morlotti)의 계승에 이어 1998년, 프라다 출신의 크리스티나 오티즈(Christina Ortiz)에 이르는 수석 디자이너 계보를 이어갔다.

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랑방 사후, 20세기 후반기 동안의 랑방은 과거의 명성에 근접하지 못한 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존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이스라엘 출신의 알버 엘바즈가 수석 디자이너를 맡으면서 21세기의 랑방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으며 오늘날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랑방 하우스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디자이너인 잔느 랑방과 알버 엘바즈를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고찰하였다.

2.1. 잔느 랑방

랑방 하우스는 창립자 잔느 마리 랑방(1867~1946)이 1889년 파리에 모자 부티크를 오픈하며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지극한 모성애의 소유자였던 그녀는 자신의 딸과 모자 부티크의 단골 고객들의 딸을 위한 아동복을 만들면서 이름을 점차 알리게 되었다. [그림 1]¹⁾ 1909년, 파리 오트 쿠튀르 조합에 가입하고,

1) (左) Le Mode誌에 실린 앙상블 (1913),
(右) 엄마와 딸의 로브 드 스틸이 그려진 랑방의 광고

파리 시내에 여성복 매장을 열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인 하우스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랑방의 대표적 디자인은 1918년 발표되어, 1920년대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로브 드 스틸(robes de style)'로, 18세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날씬하고 몸에 잘 맞는 보디스, 가는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가 강조된 드레스였다. 빅토리안 실루엣과 오래된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픽처 드레스(picture dress)' 또한 그녀의 시그너처 아이템이다. [그림 2]²⁾

랑방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는 이른바 모더니즘의 시대로, 동시대 디자이너인 샤넬, 장 파투 등이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보다 기능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전개한데 비해, 랑방은 과거의 역사적 복식과 폭넓은 장식 예술의 영향을 반영한 로맨틱한 모던 스타일을 고수하였다. 이는 랑방 디자인의 낭만적 단순미(romantic simplicity)라 정의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실루엣과 감성을 중시하는 장식적 표현성이 디자인에 공존하였음을 의미한다.(이진민, 2010) 리본과 꽃을 주요 모티프로 사용하였고, 쉬폰, 새틴, 벨벳, 태피터, 오건디, 오간자 등 다양한 소재와 텍스처를 조합하였다.

특히 그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디자인 영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과거의 복식이나 여행을 통해 수집한 이국적 소재들이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국적 자료들은 자수와 비딩, 아플리케의 도안이 되어 신비로운 이국미를 표출하였다. 역사와 종교에 관한 이국적 취향 중 랑방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시대는 중세 시대로, 랑방의 독창적인 색감과 고유의 '랑방 블루(Lanvin Blue)' 컬러를 탄생시키는 주요한 영감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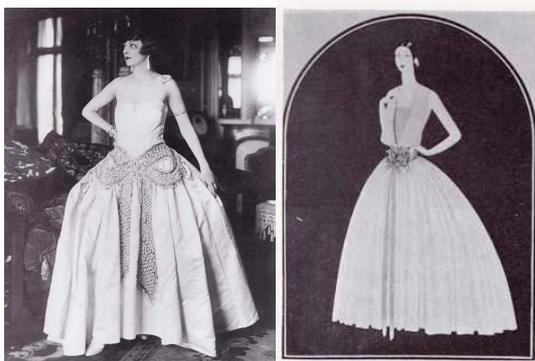
잔느 랑방의 장식적 경향은, 1920년대에 진주와 자수 장식이 중심이었다면, 1930년대 이후에는 직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물 자체를 이용한 장식이 중심이 되었다. 직물과 채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솔기 처리 테크닉(seaming technique)과 제원단 디테일(self-fabric detail) 등을 이용하여 의복의 표면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디테일을 시도하였다. [그림 3]³⁾

일러스트레이션,
2) (左) 프랑스 여배우 제인 르누아르(Jane Renouardt)가 착용한 잔주와 크리스탈로 장식한 보우 디테일이 들어간 로브 드 스틸
(右) 1925년, 픽처드레스.
3) (左) 1939년, 샌프란시스코 전시회에 출품된 흰색 오간디 리본 장식 드레스
(右) 손으로 잡은 주름 디테일의 실크 벨벳 소재 케이프

잔느 랑방은 모자 사업으로 시작하여 아동복, 여성복, 란제리, 스포츠웨어, 모피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장을 지속하였고, 1926년 남성복 컬렉션을 전개하여 온 가족을 위한 제품 라인을 가진 토털 브랜드가 되었다. 단순하고 절제된 실루엣과 우아하고 로맨틱한 여성미의 표출, '랑방 블루'로 대표되는 독창적 색감과 이국적 취향의 장식적 경향, 직물 자체를 이용한 구조적 디테일 등이 1세대 랑방의 전성기를 이끈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엄마와 딸의 드레스
출처: Dean L.Merceron (2007). LANVIN



[그림 2] 로브 드 스틸과 픽처 드레스, 1925년
출처: 左) Dean L.Merceron (2007). 앞의 책
右) 허준(1995), 파리모드 200년



[그림 3] self-fabric detail을 활용한 디자인
출처: 左) Barille, E.(2007), Lanvin
右) Dean L.Merceron (2007). 앞의 책

2.2. 알버 엘바즈

2001년 8월, 대만의 미디어 재벌인 쇼 란 왕 (Shaw Lan Wang)이 랑방을 인수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스라엘 출신의 디자이너 알버 엘바즈를 영입하였다.

알버 엘바즈는 1961년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0세때 가족과 이스라엘로 와서 성장하였고, 텔아비브에서 엔지니어링과 패션을 전공하였다. 1987년, 뉴욕으로 건너와 2년 동안 패션 봉제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제프리 빈(Geoffery Beene)에서 7년간 일하였다. 그는 제프리 빈의 보조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제프리 빈의 멘토로서 7년을 보냈으며, 그에게서 드레이핑과 테일러링, 트렌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디자인 철학 등을 전수받았다. 1997년, 엘바즈는 파리의 기 라로쉬 (Guy Laroche)에서 1년간 일하였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디어의 관심을 받으며 파리 패션의 스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Levy, A., 2009)

1998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계승자로 인정받으며 YSL이 전개하는 기성복 라인의 책임자가 되었으나, 1999년 11월, 구치 그룹이 YSL을 합병하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톰 포드를 영입하였고, 겨우 3차례의 컬렉션 만에 엘바즈는 해고되었다. 엘바즈는 이태리 브랜드 크리자아 (Krizia)로 옮겨가 1년여의 기간 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후, 2001년 10월 랑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파리에 복귀하였다.(Books LLC(Eds.), 2010 ; Jones, T. (Eds.), 2009)

2002년, 엘바즈는 랑방에서의 첫 컬렉션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진 프렌치 쿠티르에 모던한 감각을 효과적으로 더하였다고 평가받았다.

2005년부터 랑방 브랜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셀러브리티를 본격적으로 확보하였고, 니콜 키드먼, 클로에 세비그니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레드 카펫 드레스로 랑방을 선택하였다.

엘바즈는 랑방의 시그니처 컬러인 '랑방 블루 (Lanvin Blue)'를 재현하고, 디자인과 브랜드 패키징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랑방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엘바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잔잔한 플리츠의 실크 드레스, 새틴 리본 디테일과 커스텀 주얼리로 오늘날 패션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이다.

엘바즈는 잔느 랑방의 전설에 걸맞는 새롭고 창조적인 의상 디자인을 지속하였고, 창립자 랑방 사

후 명맥만을 유지하던 오래된 파리 패션 하우스를 영향력 있고, 중요한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2007년 랑방은 1489만 달러의 매출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년전인 2005년에 비해 60% 성장한 수치로 엘바즈 영입 후의 랑방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7년, 엘바즈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인물에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 세계 매장수 450개를 돌파하였다.(Bee, D., 2010)

알버 엘바즈는 랑방에 영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랑방의 미적 특성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였고, 오랜시간 축적된 랑방의 하우스 아카이브 위에 특유의 여성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을 조화시켜 랑방을 보다 젊고 창조적인 이미지로 정착시키며, 랑방 브랜드의 제 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랑방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의 빈티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오프 맨하탄 부티크의 키마 자베트(Kima Zabète)의 언급과 같이, 엘바즈는 트렌드만을 좇지 않으며, 순간의 디자이너로 잊혀지기 보다는 영원한 디자인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3.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잔느 랑방의 작품이 화려하고 섬세한 표면장식과 이에 대비되는 단순하고 고전적인 실루엣이 조화된 낭만적 단순미,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된 이국미(exotic beauty), 직물과 재단에 대한 풍부한 지식에 바탕을 두는 실험적 장식미를 특징으로 한다면(이진민,2010), 알버 엘바즈의 작품세계는 보다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한 우아하고 낭만적이면서도 미니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프랑스 패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과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디테일의 성공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알버 엘바즈의 작품 경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대표적인 미적 특성은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랑방의 디자인을 재해석하여 젊은 분위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현대적 낭만미, 아방가르드한 실루엣과 비대칭적 디자인 등을 통해 구현된 새로운 구조의 실험적 형태미,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섬세하게 구현된 장식미로 고찰되었다.

3.1. 현대적 낭만미

알버 엘바즈는 랑방의 전통적 스타일을 외면하거나 완전히 바꾸지 않았으며, 잔느 랑방이 정해놓은 디자인 공식에 따라 과거의 스타일을 현명하게 재현

하였다. 그것은 과거 랑방의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편안하고 전통적인 실루엣과 로맨틱한 디테일, 고급스러운 소재 위에 심플한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표현되었다. 즉 낭만적 감성과 단순함의 결합이라는 잔느 랑방 고유의 미적 특성을 보다 현대적이고 엄격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우아한 여성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낭만미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 4]는 엘바즈가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창조한 블루 컬러의 실크 벌룬 드레스로, 불규칙한 주름이라는 모던한 디테일과 현대적인 스타일링으로 새롭게 표현되었다.(Design Museum(Eds), 2009) 이 드레스는 과거 잔느 랑방의 드레스를 떠올리게도 하지만, 옛것의 모방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인상적인 현대적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패딩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커트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으며, 리본 장식의 주얼리와 스타일링 함으로써 현대적 낭만미의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그림6]은 잔느 랑방이 디자인했던 엄마와 딸의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루즈하고 풍성한 실루엣의 드레스로, 럭셔리한 소재와 여성적 디테일을 현대적 감각과 융합시킴으로써 현대적 낭만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7], [그림 8]을 비롯하여, 두 작품이 포함된 2008-2009년 컬렉션에서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흐르는 듯한 텍스처,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둥근 구(球)형의 실루엣이 많이 보였고,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통해 21세기 현대화된 랑방의 로맨티시즘을 보여주었다.

[그림 9]는 '11-12 F/W 시즌의 작품으로, 블랙 컬러 새틴을 소재로, 과하지 않은 볼륨과 우아한 주름 장식 등을 통해 현대적 낭만미를 표출하였다.

엘바즈는 디자인의 낭만적 특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리플이나 불규칙한 주름 등의 디테일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편안한 실루엣을 창조하였고,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다. 작품의 대부분은 무늬없는 단색 또는 대비되는 1~2색의 조화로 구성되었는데, 단색의 드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실크 새틴, 쉬폰 등 재질 자체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이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어필하였다.



[그림 4] '05 s/s [그림 5] '06-07 f/w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6] '06-07 f/w [그림 7] '08 s/s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8] '09 s/s [그림 9] '11-12 f/w
출처: www.firstview.com

3.2. 실험적 형태미

알버 엘바즈의 예술적 감각과 창조 정신은 한 세기를 이어져온 패션 하우스의 전통성 앞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엘바즈는 패턴 작업과 재단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디자인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소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소재를 다루는 기술적 능력, 평면과 입체 재단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온 결과였다.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실험적 형태미는 기존의 전통적 랑방 디자인에 엘바즈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조형 감각이 더해진 새로운 표현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과장된 볼륨과 비대칭, 비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형태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기교적 장식을 배제하고 표현을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적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다. 패턴 작업과 재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엘바즈는 솔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raw-hems 상태로 두거나, 인터페이스어나 지퍼, 그 외 여밈 장치 등의 배치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실험적인 형태미를 창조하였다. 즉, 그는 복식의 형(form)을 만드는데 있어 어떠한 인위적인 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복식의 구조와 절묘한 재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험적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10]은 '07-08 F/W 시즌의 과장된 볼륨과 비대칭적 구조의 소매가 달린 자켓으로, 과장된 볼륨의 소매는 원피스 드레스 등 다른 아이템에도 적용되었고, 엘바즈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꼽힐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이 되었다. [그림 11]은 '08-09 F/W 시즌 작품으로 엘바즈가 즐겨 사용한 비대칭의 네크라인이 특징이며, 무심한 듯 불규칙하게 잡아 고정시킨 주름과 자유로운 드레이프를 통해 실험적 형태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10-11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보다 과감해진 엘바즈의 아방가르드한 조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비구조적 네크라인, 한쪽에만 달아준 소매, 어깨를 삼각형으로 과장한 빅 사이즈의 코트, 상체에 부여한 볼륨과 유동적인 여밈 등을 통해 색다른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들 작품에서 엘바즈는 인체를 하나의 조형 공간으로 인식하여 '라인'과 '볼륨'이라는 형태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조형미를 만들어내었다.

실험적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체의 장식을 배제하였고, 블랙 컬러를 위주로 한 무채색과 어두운 컬러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혁신적인 형태를 강조하였다.



[그림10] '07-08 f/w [그림11] '08-09 f/w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12] '10-11 f/w [그림 13] '10-11 f/w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14] '10-11 f/w [그림 15] '11-12 f/w
출처: www.firstview.com

3.3. 섬세한 장식미

알버 엘버즈가 구현한 장식미는 직물 표면의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현대적 낭만미의 경우나, 실험적 형태미와는 대조되는 장식적인 특성으로,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의복 전반에 사용하는 데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 잔느 랑방이 보여주었던 이국적 취향의 비딩과 자수, 아플리케 중심의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비즈, 리본, 러플, 깃털 등 다양한 트리밍을 활용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적 디테일이 매 시즌 발표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잔느 랑방의 미적 특성으로도 언급한 바 있는(이진민, 2010) 직물 자체를 이용한 디테일(self-fabric detail)을 계승하여 좀 더 유연하고 우아하며 섬세한 장식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직물 자체를 이용하는 디테일(Self-fabric detail)의 경우, 의복의 소재를 반복해서 잘라 새로운 형태로 잇거나, 식서 방향으로 길게 잘라 엮거나, 직물에 구멍을 내거나, 누비를 등 직물 자체를 이용하는 디테일로서 비교적 단순한 실루엣의 의복 내부에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부가하게 됨으로써 부드럽고 우아한 가운데 임팩트있는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고 있

다.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실크 툴(tulle) 소재 베일, 실크 샤무즈(charmeuse)를 가늘고 작게 잘라 촘촘히 이은 조각들을 이용한 디테일([그림 17]),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겉으로 빼내어 그대로 둔 솔기와 헴 라인 등이([그림 20]) '장식'이 되어, 완벽한 구성과 재단 기술 위에 더해지면서 조화를 이룬다.

노출된 솔기와 제원단 프린지 장식, 구조적 탑스티치 등은 화려한 비딩과 함께 오픈 쿠티르의 수공예적 외관을 재현하고 있으며, 비딩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더욱 다양하고 고급스러워져 시크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림 16]은 '03 S/S 시즌의 작품으로 실크 새틴을 길게 잘라 허리선에서 엮어 네크라인과 상체를 장식한 디자인이다. [그림 18]은 직물을 가로 방향으로 반복해서 이어 입체적으로 구성하였고, [그림 19]와 [그림 20], [그림 21]은 가장 최근의 컬렉션으로, 직물 자체를 이용한 디테일에 비딩을 더하여 매우 화려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직물을 잘라 낸 후(cut-out), 접어 올려 고정하고, 접어 올린 공간 사이로 다양한 비즈를 장식하였으며, 커스텀 주얼리와 함께 스타일링 되어 장식미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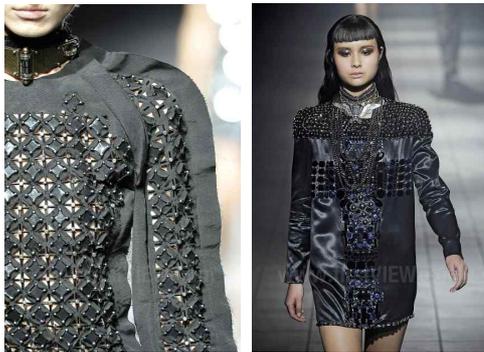
섬세한 장식미에 중점을 둔 디자인의 경우, 의복의 실루엣은 대체로 심플하며, 장식미를 강조하기 위해 블랙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과 단색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로 사용된 소재는 새틴, 레이스, 쉬폰 등으로 다양한데, 이들 소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플리츠, 셔링, 자르고 잇기, 패치워크 등의 기법과 비즈, 리본, 깃털 등의 다양한 트리밍과 만나면서 더욱 섬세하고 화려한 21세기 랑방의 감각적인 장식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6] '03 s/s [그림 17] '07 s/s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18] '08-09 f/w [그림 19] '11 s/s
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20] '11 s/s [그림 21] '12 s/s
출처: www.firstview.com

구분 특성	스타일	소재와 색상
현대적 낭만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느 랑방의 낭만적 단순미의 미적 특징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분위기로 전환 - 불규칙한 주름과 리플을 이용한 부드럽고 풍성한 실루엣 - 최소한의 트리밍을 통한 미니멀한 현대적 낭만주의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 쉬폰, 벨벳, 레이스 등 - 랑방 블루를 비롯하여 레드, 오렌지, 바이올렛 등 다양한 컬러
실험적 형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된 볼륨, 비대칭, 비구조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실루엣 - 표면 장식을 거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 자카드, 실크, 광택 소재, 빈티지 소재 등 -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등 무채색 계열 및 어두운 컬러
섬세한 장식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 리본, 리플, 깃털, 등의 섬세한 표면장식을 의복의 부분과 전체에 장식 - 직물 자체의 Self-fabric detail을 이용한 현대적 화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틴, 쉬폰, 실크, 가죽 등의 소재와 다양한 종류의 트리밍 - 블랙 위주 무채색 및 랑방 블루, 핑크, 옐로우 등 다양한 컬러

[표1] 알버 엘바즈에 의한 랑방 디자인의 미적특성

4. 요약 및 결론

우아한 여성성, 단순한 실루엣과 로맨틱한 디테일, 이국적 취향과 독창적 색감의 조화로 파리 패션계에서 입지를 패션 하우스 랑방은, 1세기가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랜 침체의 시간을 겪기도 하였으나, 2001년 임명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버 엘바즈에 의해 젊고 창조적인 이미지로의 변신을 꾀하며 브랜드의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알버 엘바즈에 의해 새롭게 부활한 패션 하우스 랑방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혁신과 역량을 키우는 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알버 엘바즈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랑방 디자인의 미적특성은 현대적 낭만미, 실험적 형태미, 섬세한 장식미로 고찰되었다. [표 1]

첫째, 현대적 낭만미는 낭만적 감성과 단순함의 결합이라는 잔느 랑방 고유의 미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서, 과거 랑방의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편안하고 전통적인 실루엣과 로맨틱한 디테일, 고급스러운 소재 위에 심플한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표현되었다.

둘째, 실험적 형태미는 기존의 전통적 랑방 디자인에 엘바즈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조형 감각이 더해진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서, 과장된 볼륨과 비대칭, 비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조형적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셋째, 섬세한 장식미는 의복전반에 고급스러운 장식적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표출되는 미적특성으로, 과거 잔느 랑방이 보여주었던 섬세한 수공예적 디테일을 더욱 발전시킨 다양한 트리밍과 직물 자체를 이용한 디테일의 활용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화려하며, 우아한 장식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알버 엘바즈는 랑방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곧 절제된 낭만성과 섬세하고 독창적인 장식성의 측면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재현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 본인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디자인에 투영함으로써 보다 실험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고유성을 잃지 않은 랑방의 오늘을 이루어 낸 것이다. 즉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현대적 계승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이 조화, 공존함으로써 브랜드의 부활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설립된 패션 하우스의 1세대 디자이너를 잇는 2,3세대 디자이너의 역할 및 역량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석 디자이너의 이동은 언제나 이슈가 되며, 그들의 역할에 따라 브랜드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능력있는 차세대 디자이너에 의한 패션 하우스의 성공적 계승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리(2007).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전략과 효율성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민(2010). 잔느 랑방 디자인의 미적 특성, '한국디자인포럼' , 29, 391-399.
- 이해연(2005). 패션브랜드 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랜드를 중심으로 -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준(1995). '파리모드 200년' , 서울:유림문화사.
- '보그 코리아' , 2010년 3월호, 470-483.
- Barille, E.(2007). *Lanvin*, Paris : Assouline.
- Bee, D.(2010). *Couture in the 21st century*, London: Harrods Publishing.
- Books LLC(Eds.)(2010). *Israel Fashion*, Memphis: Books LLC.
- Design Museum(Eds.)(2009). *50 Dresses That Changed the World*, UK: Octopus Ltd.
- Eceiza, L.(2008). *Atlas of Fashion Designers*, maomao publications.
- L. Merceron, D.(2007). *LANVIN*,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 Jones, T. (Eds.)(2009). *100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Köln: Taschen.
- Levy, A.(2009). Ladies' Man : Alber Elbaz and the Lanvin aesthetic, *The New Yorker*, 85(10), 72-81.
- Schwaab, C.(2011), *Talk about Fashion*, Paris: Flammarion.
- 이민선(2011), 잔느 랑방, Navercast 2011.9.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6100&path=|455|510|&leafid=688.
- 랑방 홈페이지 www.lanvin.com.
- 퍼스트뷰닷컴 www.firstview.com.